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청주 삼겹살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청주를 살린 전통
수상내역	2012 청주 삼겹살 스토리텔링 공모전 역사이야기 부문 최우수상
작가	명광일, 성기백, 김영진
공모분야	역사이야기
기획의도	삼겹살의 본고장인 청주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다. 그 이야기들을 청주 전투라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끌어내어 신빙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청주 삼겹살만의 특색과 전통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 청주를 살린 전통 】

명광일 외 2명

“어허, 그 입 다물지 못하겠소!”

여름밤의 정적을 깨는 고성에 막사의 장병들은 깜짝 놀라 밤잠에서 깨어났다. 왜군의 진영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 조용히 소란 피우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고작 한 식경 전이건만, 병사들은 불안한 얼굴로 청주성과 회의장 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얼른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만호께서 이 사태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리 하겠소이다.”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지도는 구겨진 채 아무렇게나 내팽겨쳐져 있었고, 융복 차림의 관군 장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눈앞의 사내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다. 눈빛만으로 사람을 해할 수 있다면 지금 그의 눈빛이 그러하리라. 그는 씹어 뱉듯 사내의 말에 대답했다.

"일개 의병장 따위가 무엇이 어째?"

사십 대 중반 쯤 됐을법한 사내는 자신보다 열 살은 어려보이는 장수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태연하게 갇끈을 고쳐 매며 차분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 '일개 의병장' 따위가 지금 청주 탈환군의 7할 이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 만호."

어조는 은근했지만 내용은 헐박이나 다름없었다. 그 도발에 청주 탈환군의 수장인 만호 이육은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칼을 뽑아 사내의 목에 겨누며 소리쳤다.

"조현, 그 입 닥쳐라! 나는 조정에서 보낸 종4품 만호니라! 너 따위 유생놈이 감히 조정의 장수를 헐박하는 것이냐!"

날카롭게 버린 환도(環刀)에도 불구하고 조현이라 불린 사내는 여전히 태연자약했다. 외려 그는 한 발짝 이쪽 쪽으로 다가서며 설검(舌劍)을 뽑아들었다.

"그래? 말 한 번 잘했구나. 허면 대답해보라. 나 같은 유생놈도 앞장서는데 대관절 네놈은 무엇이 두려워 청주성을 코앞에 두고 도망칠 궁리나 하고 있는지 말이다."

"뭐...뭣이?!"

이옥의 얼굴이 삼시간에 흠빛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이옥 주변에서 금방이라도 검을 뽑을 기세를 갖춘 나머지 관군 무관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조현은 그들을 향해 준열한 어조로 꾸짖었다.

"네놈들, 나라의 장수라는 자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칠 궁리나 하니 이 나라 조선이 왜적에게 유린되었고, 주상 전하께서도破天(破天)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더냐. 이제라도 죄를 깨닫고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고작 적진 앞까지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줄행랑이란 말이더냐? 그리고도 네놈들이 정녕 조정의 장수라 할 수 있느냐?!"

어느새 조현 옆에 시립하고 있던 의병장 영규 대사와 박춘무 역시 선장과 칼을 뽑아들고 있었다. 이옥은 조현의 목에 칼을 겨누는 채로 상황을 헤아려 보았다. 숫자는 관군 무관들이 많았지만 왜군 소부대를 습격할 때 보여준 영규 대사와 박춘무의 무예는 그들이 감당할 바가 아니었다. 그는 침을 삼켰다. 이대로 조현의 목을 벨 수는 있을지언정 자신도 살아남기는 어려우리라. 조현이 그런 이옥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 말을 이었다.

"한심하다. 참으로 한심한 자로구나. 이 상황에서도 그저 한 목숨 건사할 생각밖에는 할 수 없다니, 조정의 장수가 모두 이러한가?"

조현은 길게 탄식하며 고개를 돌렸다. 이옥의 환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조현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일별하며 말을 맺었다.

"동이 뜨기 전 썩 사라져라. 네놈들 또한 조선의 백성이니..."

이옥을 비롯한 관군 간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어트렸다.

조현의 병사들이 관군이 떠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해가 뜬 다음이었다. 출전을 앞두고 갑작스레 줄어든 군세에 당황한 병사들에게, 조현은 조식이 끝나고 모든 병사들을 막사 앞에 불러놓고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 군은 이천, 반면 저 튼튼한 청주성 안의 왜군은 우리의 몇 배에 달한다."

공성은 통상 두 배의 군세를 가지고도 어렵다는 것이 병가의 상식이다. 허나 지금의 상황은 공격측이 수비측의 반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불리한 사실이었지만 의병들의 표정은 요지부동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적은 생전 본 적이 없는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가졌고, 무엇보다 검술이 월등하다. 운 좋게 조총을 피해 성벽을 타 넘어도 왜군의 창검에 속수무책 당하기 십상이다."

의병들이야 농사짓던 농민들일 뿐이니 검술이니 궁술이니 알 턱이 없었다. 조현은 그런 그들과 하나하나 눈을 마주쳤다. 이들 모두가 나라가 지켰어야 했을 백성이었다. 전쟁이라곤 평생 모르고 살았던 순박한 농민들이다. 그런 농민들이 지금 관군의 일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다.

"관군은 대패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것은 우리뿐이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런 땅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을 후대에 대물림하겠는가? 아니면 지금껏 그래왔듯 나를 믿고

따라 줄 수 있겠는가?!"

2천 의병은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적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하나 이곳은 우리의 땅! 그대들이 내 작전대로만 따라준다면 반드시 청주성의 관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알겠는가?”

“예, 장군!”

병사들의 사기를 확인한 조현은 칼자루에서 검을 힘차게 뽑으며 외쳤다.

“그럼 전군, 출진하라!”

7천 왜군이 주둔하고 있는 청주성 안은 분주했다. 바쁘게 성내를 왕래하는 사람들은 왜군 말고도 조선 백성들로 가득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곧장 한양을 노리고 진공해온 1군 고니시 유키나가의 기습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포로가 된 청주 백성들이었다.

본래 청주가 병참선이기는 했지만 남부의 관군을 전멸시킨 왜군에게는 그리 위협적인 지역이 아닌지라 군량 운송로를 유지할 병력만 두면 되었다. 허나 청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란이 그 계획을 수정하도록 만들었다. 영규 대사의 승병들이 이따금씩 청주를 기습했고, 박춘무는 아예 청주 지역에서 거병해 심심찮게 군량 수레를 약탈해 갔다. 그들이 소수의 군세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도 능력이었지만 청주 백성들의 협조 역시 큰 역할을 했고, 왜군 역시 의병대와 백성 간의 공조를 눈치채고 병력을 강화시켜 지금의 청주성은 가히 금성탕지와도 같았다. 그 곳으로 의병장 조현이 영규 대사와 박춘무의 부대를 아울러 수천의 병력으로 공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왜군 측은 이번에는야말로 의병들을 절멸시켜 버리겠다며 대규모 출진을 준비하며 청주성의 백성들에게 식량과 물자를

징발했다.

취사장은 설새없이 바빴다. 물론 출진이 예정된 오늘은 더욱. 취사장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지만 누구도 설수는 없었다. 취사장 구석에서 왜군 병사의 눈이 번득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조심하세요!"

한 소녀가 재빨리 달려가 쓰러지려는 여인의 손에서 찬통을 낚아챘다. 소녀는 흘긋 왜군 병사 쪽을 일별하며 여인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밥 뜬뜨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좀 쉬세요. 이거 저한테 주시고."

"그..그러, 고마워..."

"얼른 기운 차리셔야죠."

여인의 등을 떠밀듯 자신이 일하던 쪽으로 보낸 소녀는 찬통을 들고 힘겹게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낄낄대는 모습을 바라보던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인이 다가와 반대쪽을 들며 나지막하게 말을 건넸다.

"눈에 띄지 말어."

"네?"

소녀는 저도 모르게 반문했다. 중년여인은 왜군 병사의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놈들 눈에 잘못 띄었다간..."

소녀는 씩씩하게 미소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심혀. 신세 망치지 말구...허기사 더 망칠 게 무에 있겠냐 마는..."

중년여인은 찬통을 내려놓고 사라졌다. 소녀는 침울한 얼굴로

자신이 일하는 장소로 돌아갔다. 아궁이 위에는 돼지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예로부터 임금에게 돼지고기를 바치던 지방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왜군 지휘부 전용으로 만들어 올리라는 것이었다. 소녀는 숙수인 아버지 덕분에 최소한 고기를 매일 볼 수는 있었다.

듣자니 이번에도 청주 공격대가 온 모양이었다. 두세 번에 걸친 토벌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기대가 아니 될 수는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왜장의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기분을 좋게 하여 취사장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는 것뿐이었다.

돼지고기가 알맞게 익자 소녀는 고기를 꺼내 도마 위에 얹었다. 원래 청주 관아의 숙수였던 아버지가 하던 일이지만 의병대에 가입해 싸우다 전사한 이후로는 그녀의 일이 되었다. 소녀는 작두에 고기를 얹고 눈을 감았다. 이걸 왜장의, 왜놈의 머리통이라고 생각하자. 아버지가 죽고 난 후 항상 그 생각으로 고기를 썰었다. 언젠가는 정말로 그런 날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소녀는 대접에 고기를 담아 취사장을 나섰다. 청주 관아 앞을 지키는 수비병에게 식사를 건네준 소녀는 주위를 살피며 다시 취사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평소보다 왜병의 수가 줄어든 것을 보니 아무래도 한창 전투가 진행 중인 모양이었다. 바깥에서 포성의 메아리가 바람을 타고 작게 들려왔다. 소녀는 혹시, 기대감을 숨긴 채 다시 취사장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조리장은 일반 취사장과는 다르게 조용했다. 그녀가 일하는 곳에서 하는 일은 병사들의 군량 조달이 아니라 지휘부에 올리는 상식이기에, 숙수 한 명과 보조 한 명만이 일하고 있었다. 그나마도 지금은 아무도 없었다. 소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아래 찬장을 열었다. 찬장 안에는 몇 개의 향아리가 놓여 있었다. 소녀는

앞의 향아리들을 치웠다. 그러자 안쪽의 작은 향아리가 드러났다. 향아리의 뚜껑에는 ‘보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소녀는 손으로 그 글자를 어루만지다 살짝 뚜껑을 열어보았다. 열은 소금기 섞인 깊은 냄새가 새어나왔다. 소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나직하게 달싹였다.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의 눈은 ‘보은’이라는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평생 식칼만 잡던 아버지가, 주위에 묻고 물어 겨우 쓸 줄 알던 두 글자, 자신의 이름.

“밥은 드셨어요? 어찌나, 우리 아버지 남이 해준 건 안 드시는데.”

대답이라도 하듯 향아리 안에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그 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갖다드릴게요. 우리 딸 솜씨가 최고라고 하셨잖아요.”

소녀, 보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향아리는 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보은은 그 향아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그녀의 꿈이었고, 미래였다. 언젠가 꼭 아버지에게 직접 만든 근사한 밥상을 올리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다.

“후...”

보은은 취사장 너머를 살피며 찬장을 돌려놓고 문을 닫았다. 언제쯤 그 날이 올까.

조현의 2천 결사대는 세 배에 달하는 왜군 요격대를 맞아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이전의 부대보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작전의 치밀함, 그리고 고향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그 누구보다 용맹하게 앞장서서 싸우는 청주 출신 의병들의 활약에 있었다. 왜

군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지형을 활용하는 조헌의 용병술에 결정적인 승기를 잡지 못하고 동분서주할 뿐, 의병들은 오전 내내 벌어진 교전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허나 역시 중과부적인가. 미시(未時:13시-15시)에 접어들면서 조헌의 본대가 전선을 이탈해 서쪽으로 달아났고, 신시(申時:15시-17시) 즈음해서는 영규 대사와 박춘무의 부대가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다.

허나 도주도 그냥 도주가 아니라, 곳곳에 설치된 함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격군 쪽에서 만만찮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다. 사망자가 늘어나자 분노한 요격군의 장수는 씹어 뱉듯이 소리쳤다.

“저 놈들을 전멸시키기 전까지는 귀환하지 않으리라! 너는 서쪽으로 도망친 놈들을 쫓아라!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하이!”

6천의 왜군은 훈련된 정예병답게 둘로 갈라져 정연하게 의병들의 뒤를 쫓았다. 먼저 휘하의 칠백여 병력을 이끌고 도주한 조헌은 지형을 잘 이용해 곳곳에 도망친 흔적을 남겨두고, 본대는 청주성 서문 쪽으로 우회하며 이따금씩 왜군 정찰대를 습격해 처치하고 갑옷을 수거했다.

치열한 혈전이 끝나고 땅거미 진 밤이 찾아왔다. 공동 거주지에 수용된 조선 백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성 바깥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끼이익-

성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일단의 왜군 기마병이 성 내로 들어섰다. 그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조선인 거주지 쪽으로 말을 몰았다. 조선 백성들을 감시하던 왜병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어찌됐나?”

“대승이지. 장군은 안에 계시나?”

“나오시는 건 못 봤다네.”

십여 기의 기병은 그곳을 지나 관아로 향했다. 관아 앞의 취사장에서 웬 여인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비쳤다. 행색으로 보아 조선인이었다. 기병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조선 사람이오?”

왜군의 입에서 조선말이 나오자 그녀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의아한 듯 물었다.

“뉘신지요?”

맨 앞에 선 기병이 눈짓을 보내자 다른 병사들이 신속하게 보이지 않는 건물 뒤편 등으로 사라졌다. 단 둘만 남게 되자 사내는 말을 숨겨 두고 취사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잠시 시간을 내주었으면 하오만.”

소녀의 맑은 눈망울이 사내의 눈을 주시했다. 이제 열 예닐곱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를 향한 시선은 아버지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 눈빛을 믿을만하다 여겼는지 그녀는 순순히 그의 뒤를 따랐다. 사내는 들어서자마자 서슴없이 말을 꺼냈다.

“나는 청주 탈환군의 수장 조현이라 하오.”

소녀의 눈에 이채가 어렸다. 조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내일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오. 처자도 이 나라 조선의 백성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소?”

조현은 소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왜군의 경비는 예상보다도 삼엄했다. 여의치 않다면 몇 놈 해치워서라도 내용자를 찾으려 했으나, 무리하게 움직이다가는 엄중한 경계에 발각되기 십상이다.

조현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장을 감추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절을 올렸다.

“꿈에서도 바랐던 일입니다. 소녀 또한 장렬하게 돌아가신 의병의 여식, 장군께서 시키실 것이 있으시거든 하명하소서.”

고개를 드는 소녀의 물기 어린 눈은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만 보고 들을 나이에 겪었을 고생이 단정한 이목구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조현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의사(義士)의 자식이라면 처자 또한 열녀(烈女)로다. 방명이 어찌 되오?”

“한가 보은이라 하옵니다. 장군께서는 말을 낮추소서.”

보은의 공손한 인사에 조현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하필이면 이런 어린 아이에게 힘든 짐을 지워야 하는가. 그런 조현의 고민을 알아차렸는지 보은이 말을 이었다.

“장군께서는 이미 심중에 계책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그녀의 얼굴은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마음을 굳힌 조현은 조심스럽게 품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보은에게 건네주었다.

“성 밖의 왜군은 의병들을 소탕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야. 이 정도면 몇 인분이나 섞을 수 있겠는가?”

“미혼분(迷魂粉)이옵니까?”

“비슷하다 보면 되네.”

조현의 대답에 보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조현은 긴장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많이들 사용한다고 들었네만...?”

“미혼분은 그 향이 아주 강하여 산해진미라면 모를까 별다른 찬이 없는 병영의 식사에 첨가할 경우 누구나 쉽게 눈치를 채고 말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조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반문했다.

"정녕 그게 사실인가?"

"송구하옵게도..."

보은 또한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조현은 허탈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다.

"다 내 부덕이로다...이런 것도 계책이라 준비한 내가 부끄럽구나."

"하온데..."

조현은 보은 쪽을 돌아보며 의문의 눈짓을 보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군의 계책은 성내의 왜군을 혼란에 빠트리는 목적이 아니옵니까?"

"그렇지. 그리고 방어 부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성을 점령한 연후 성 밖의 우군과 협공할 생각이었네."

"허면 왜군 수비대를 무용지물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인지요?"

조현은 보은의 얼굴에서 비치는 자신감에 되물었다.

"대안이 있는가?"

보은은 살며시 다가가 그에게 귀엣말을 속삭였다. 조현은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감탄했다.

"어린 처자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헌데 가능하겠는가?"

일말의 불안감이 어린 질문이었다. 계책을 세웠다 해도 그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했다. 허나 보은은 그마저 없애버리듯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믿으옵소서. 선친께서는 청주 제일의 숙수였습니다."

어제까지 기대 반 불안 반의 청주성의 왜군들은 하루 만에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다. 오시(午時11시-13시)가 지나자마자 돌아온 전령이, 마침내 청주 전역의 의병들을 모두 소탕했다는 승전보를 들고 온 까닭이었다. 남은 것은 대장 조현을 위시한 백여 명인데, 이

들 또한 산중에서 포위했으니 오늘 안으로 잡아서 끌고 오겠다는 보고도 들어 있었다. 소식을 접한 왜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도록 명했다. 취사장의 조선 백성들이 한없는 근심으로 명을 이행하고 있을 때, 보은은 자신의 조리장 안쪽에 있는 작은 향아리를 꺼내놓고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 너무 떨려요. 제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은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서서히 내려놓았다. 마음을 가라앉힌 그녀는 향아리의 뚜껑을 벗겼다. 안에는 아버지만의 비법(秘法)에 따라 만든 간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보은은 큰 바가지로 간장을 한가득 퍼담았다. 약간의 소금기 섞인 된장 냄새 같기도 하고, 신 것도 짠 것도 아닌 묘한 냄새가 조리장 안을 진동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버지의 냄새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꼭 참고 도마 위의 고기를 간장에 담갔다. 고기의 선홍빛 속살이 검게 물들었다. 향이 잘 배도록 깊게 담았다. 간장이 잘 배인 것을 확인한 보은은 왜장을 비롯한 부관들이 먹기에 모자라지 않게 고기를 잘게 썰었다. 이윽고 종잇장처럼 잘린 고기들이 도마 위에 수북하게 쌓였다. 보은은 고기를 굽기 전 한쪽에 쌓여 있는 나물들을 꺼내고 얇게 썰어 왜장에게 내갈 대접 가장자리에 둥그렇게 펼쳐놓았다.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화덕에 불을 붙였다.

고기가 얇은 만큼 금방 익기에 타지 않도록 보은은 화덕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윽고 대접 위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돼지고기가 모양 좋게 올라갔다. 보은은 음식을 가득 담은 쟁반을 들고 청주 관아로 발걸음을 옮겼다. 보은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왜장의 처소를 찾았다. 처소 앞의 왜군 병사가 왜장에게 보고했다.

"장군, 식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처소에는 왜장을 위시한 왜군 간부 너댓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보은은 고개 숙여 절을 올리며 커다란 탁상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왜장은 차려지는 식탁을 보며 의문 어린 얼굴로 물었다.

"이것은 무엇이나?"

"간장에 절인 돼지고기입니다. 드셔 보소서."

왜군 간부들은 저마다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한 젓가락씩 고기를 집어 먹었다. 왜장 또한 수상쩍은 얼굴로 고기를 씹었는데, 처음의 표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화색이 돌고 있었다.

"이게 정녕 돼지고기가 맞느냐?"

"소녀 어찌 거짓을 고하겠나이까."

"참으로 신기하다. 어찌 이런 맛이 나느냐?"

"간장은 고기의 육질을 연하게 하여 부드러운 맛을 내고, 또 돼지의 누린내를 없애 주어 깔끔하게 합니다."

왜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아한 듯 물었다.

"그게 고작 간장 하나로 해결된단 말이냐?"

보은은 부드럽게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이것은 그냥 간장이 아니옵니다."

"그냥 간장이 아니라고?"

보은의 머리로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정리하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명암의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청주의 약은 명암 약수(藥水)라 하여 잃어버린 기를 되찾고 누워있던 자를 생하는 효능이 있다 하였지요. 그 물에 소금을 섞어 만들었사옵니다."

고기를 한 점 집어먹은 왜장은 얼굴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조선에는 참으로 명물이 많구나! 술을 가져오라. 이와 같은 성찬을 앞에 두고 술이 빠져서야 되겠느냐?"

보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그리 하겠사옵니다."

물러가는 보은의 뒷전으로, 왜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에게도 연회를 열도록 하라.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여 내리는 포상이니라."

"하이!"

청주성 안은 금세 고삐 풀린 왜군들의 향락으로 가득찼다. 그들은 거나하게 취해 군기란 찾아볼 수 없었고, 왜장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술을 가져오고 물러나려는 보은을 옆에 앉히고 술시중을 받고 있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한가 보은이라 하옵니다."

보은은 다소곳하게 대답하며 왜장의 잔을 채웠다. 술을 단숨에 들이키며 왜장은 흥취 오른 목소리로 말했다.

"듣기로, 조선 계집들이...딸꾹! 자색이 곱고 가사에 능하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과찬이시옵니다."

보은은 볼을 붉히며 다시 왜장의 잔에 술을 따랐다. 왜장은 이번에도 곧장 잔을 들이켰다. 왜장도 부관들도 모두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오늘 밤 내 처소로..딸꾹! 들거라."

왜장은 보은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며 중얼거렸다. 보은의 눈가에 순간 살심이 어렸다. 막 왜장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포성이 들려왔다.

쾅!

"무슨...딸꾹! 일이냐?"

대답이라도 하듯 여기저기서 폭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쓰러져있던 부관들이 동시에 통겨지듯 일어섰다. 왜장도 별안간 놀라 고함쳤다.

"모두 나가라! 명군이나 조선 관군의 습격일지도 모른다!"

부관들이 제각기 임지를 향해 달려 나갔다. 왜장은 슬기운이 오르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보은에게 말했다.

"거기...내 투구를 다오."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보은은 투구를 들고 왜장의 등 뒤로 다가섰다. 왜장은 머리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손길에 기분 좋은 듯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네 나이가 올해 몇...음?!"

왜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어느새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단검이 정확하게 복부에 박혀 있었다. 왜장의 귓가에 보은은 싸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청주 제일 숙수인 의사(義士) 한충선의 딸, 한보은이다!"

보은은 힘차게 칼을 뽑아 다시 찔렀으나 이번에는 왜장이 더 빨랐다. 전장에서 단련된 왜장의 힘은 고작 열일곱 소녀에 비할 바 아니었다. 보은을 밀쳐낸 왜장은 복부의 상처도 잊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네 이년!"

보은의 단검이 땅에 떨어짐과 함께 왜장의 검이 곧장 그녀의 어깨부터 내리그었다. 그녀는 입가에서 피를 쏟으면서도 몸을 벽에 기대 채 또박 또박 말문을 열었다.

"전장의 장수라는 자가 고작 그 정도라니, 왜놈들은 참으로 한심하구나."

왜장은 이를 갈며 재차 검을 치켜들었다. 보은은 흠어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왜장의 칼을 노려보았다. 죽어도 절대 비굴하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보은의 시야 가득 은빛 광망이 들어왔다.

퍽!

“으!”

왜장은 신음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두루마기에 갓 차림의 사내, 조현이 서 있었다. 조현은 보은의 위기에 곧바로 왜장에게 달려들었다.

“장군...”

보은은 천천히 벽에 기대어 쓰러지며 조현과 왜장의 격돌을 지켜보았다. 왜장은 복부에 칼을 맞고 어깨에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가 대단했다. 조현 또한 의병대의 대장으로 범상한 무예는 아니었지만 평생을 검에 매진한 이와 어찌 비할 수 있으랴.

열 함을 넘어서부터 겨우 버티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 보은은 흐릿한 눈으로 둘의 대결을 보았다. 왜장의 장검이 금세 조현의 몸을 난도질할 기세로 요동치고 있었다. 보은은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왜장의 기세는 계속 오르고 있었다. 힘차게 뺨은 왜장의 참격이 조현의 갓을 자르고 지나갔다. 그와 동시에 단검을 손에 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짜내 왜장에게 던졌다.

퍽-!

순간적으로 공격받은 왜장의 몸이 한 박자 늦게 반응했고, 때를 놓치지 않은 조현의 환도가 그대로 왜장의 목을 쓸고 지나갔다.

“작!”

왜장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조현은 안도할 틈도 없이 곧장 보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제 때 와주셨습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한 게야! 어찌 아녀자의 몸으로...어찌...”

조현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눈물이 그렇그런 눈으로 보은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비의 원수이옵고, 청주의...원수이옵니다. 여한은 없습니다.”

“이런다고 선친께서 좋아하실 것 같았는가!”

보은의 입에서 기침소리와 함께 핏덩어리가 쏟아졌다. 그녀를 지켜보는 조현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흘렀다. 보은의 뺨에도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참으로 외람되오나, 하아... 청이 있사운데...”

“말하게.”

보은은 잘 가누지 못하는 손을 들어 왜장의 식탁을 가리켰다. 보다 못한 조현이 그녀의 팔을 지탱해 주었다. 보은은 덜덜 떨리는 몸으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선친께 소녀의 손으로...음식을 지어 올리고 싶었습니다.”

조현은 숨죽여 오열했다. 그런 그의 귓전으로 보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감히 청하옵건대...언제라도 좋으니...소녀의 조리장에 선친의 비법서가 있사오니...”

“더 말하지 말라. 내 직접 의사(義士)의 위패 앞에서 네 음식을 바치고 따님이야말로 참된 열녀(烈女)였다 고할 게야.”

“감사, 또 감사하옵니다. 장군의 은혜, 쿨럭! 실로 백골..난...”

조현은 그녀의 몸을 힘주어 잡았다. 점점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다.

“더 말하지 말라 하지 않았는가! 정신차리게. 절대 잠들면 안 되네. 정신차려!”

보은의 눈이 조현과 마주쳤다. 막 감기려고 하는 그 눈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안 된다, 눈을 뜨거라! 눈을 떠! 어서!”

보은에게는 대답이 없었다. 어느새 포성은 가라앉아 있었고, 영규 대사와 박춘무, 그리고 뒤늦게나마 청주 탈환군에 가세한 이옥을 위시한 관군 간부들은 눈앞의 광경에 탄식하며 고개를 숙였다.

영규 대사의 목탁 소리가 그녀를 위로하듯 청주 성내에 울려 퍼졌다. 전쟁은 끝나고...청주성 서문 가에 위치한 집 앞에 두 개의 위패가 세워졌다. 그 위패에 제를 지낸 음식으로 음복(飲福)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궁중의 수랏간에서도 주상의 몸이 좋지 않았을 때에는 매번 청주 돼지고기를 올렸고, 그 덕에 건강해진 주상이 청주에 부녀의열문(父女義烈門)을 내려 한충선 부녀의 이름을 기렸다고 한다.